

“안심할 수 있는 외달도서 피서하세요”

목포시, 오는 10일부터 다음달 22일까지 해수욕장·해변 개장·운영 코로나 차단 위해 대응팀·사전 예약제 운영...여객선으로 50분 소요



목포시가 '슬로시티 섬' 외달도 해수욕장과 해변을 7월 10일 개장해 8월 22일까지 운영한다. 시는 해수욕장 바닥매트 교체를

비롯해 대형 그늘막·해수 공급시설·샤워장 및 해수욕장 편의시설 등을 정비해 외달도를 찾는 관광객이 편하게 피서를 즐길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마쳤다.

특히 피서객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코로나19 대응팀(5명)'을 배치해 피서객의 외달도 도착시 발열 체크와 전자출입명부 등록을 실시한 뒤 이상이 없을 경우 안심밴드 착용 후 입장하도록 운영할 방침이다. 또 샤워장, 화장실 등은 매일 2회 이상 방역소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해수욕장 이용객의 밀집도를 낮추기 위해 ▲사전 안심예약제(네이버 외달도해수욕장 검색

또는 바다여행) ▲안심콜 ▲거리두기 구획제(4m)를 시행한다.

선박 운항 시간은 목포여객선 터미널에서 외달도행은 오전 7시와 10시 30분, 오후 1시30분과 4시30분이고, 외달도에서 목포여객선 터미널행은 오전 7시 55분과 11시25분, 오후 2시25분과 5시25분이다.

목포에서 여객선으로 50분(6km) 정도 떨어진 외달도는 때 묻지 않은 자연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섬으로 다도해 풍광 속에서 호젓하게 휴식할 수 있고 전복, 촌돔 등 보양식도 맛볼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 청정지역인 목포, 그 중에서도 청정해역을 자랑하는 외달도는 피서지로서 제격이다”면서 “방역에 최선을 다 해 코로나로 지친 관광객이 안심하고 피서를 즐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목포=박정수기자



신안체력인증센터, 어르신·청소년 체계적인 건강관리 업무협약 체결

신안군체육회-대한노인회-안좌고등학교 업무협약식

신안군체육회 신안체력인증센터(신안군체육회장 김재원)는 지난 6월 29일 대한노인회 신안군지회(지회장 오호근), 안좌고등학교(교장 김영복)와 청소년 및 어르신의 체계적인 건강·체력관리를 위한 상호 교류·협력과 체력인증 공적활용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다.

이번 업무협약 체결로, 찾아가는 생애주기별 체력측정을 통한 맞춤형 운동처방 서비스 제공으로 어르신 비중이 높은 지역특성을 고려한 근골격계 맞춤형 운동처방을 제공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 또한 체력인증 학교를 지정하여 체력향상도 측정을 지속적으로 제공하며, 특히, 안좌고등학교의

부사관지원자를 대상으로 체력인증의 공적 활용을 적극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아울러 체력측정 외에도, 학생 대상 체력증진교실을 운영하여 학생들이 다양한 전문체육(태권도, 합기도 등)을 배울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재원 신안군체육회장은 업무협약 추진과정에서, 국민체력100 사업에 대한 어르신과 청소년의 관심과 만족도가 매우 높음을 확인 할 수 있었으며, 앞으로도 소외지역(경로당), 직장인을 포함한 신안군 건강공동체 조성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신안=이명주기자

영광군농기계임대사업소, 정상근무 전환

영광군은 파종시기 농촌일손 돕기 일환으로 추진한 2021년도 상반기 농기계임대사업소 '상시근무제'를 종료하고 '정상근무제'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농번기 상시근무제는 파종시기 임대농기계 이용률 제고를 위해 3월부터 6월까지 4개월간 토요일과 공휴일에 쉬지 않고 농기계임대사업소 3개소(본소, 북부·남부분소)를 연속 운영하는 제도이다.

운영성과로 상반기 이용자는 총 6,495명이며, 이용일수는 8,286일, 총

임대수입액은 1억6천5백만 원이며, 총임대수입액 중 8천만 원을 감면지원으로 코로나19 상황 대응에도 만전을 기하였다.

운영 안내사항으로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간 정상 근무로 전환하는 농기계임대사업소는 평일을 제외한 토요일과 공휴일에는 운영하지 않는다. 또한 농기계 출고 시간은 오전 8시부터 9시로 변경되고, 입고(반납) 시간은 당초와 같이 오후 18시까지 운영한다.

영광=서희권기자



함평군, 슬레이트 건축물 현장조사 실시

9월말까지 환경공단 결과 입력

함평군이 관내 슬레이트 건축물의 체계적인 관리와 효율적인 처리대책 마련을 위해 슬레이트 건축물에 대한 현장조사에 나선다.

2일 함평군에 따르면 군은 지난 3월부터 건축물 대상, 위생영상 등을 활용 실시한 '2021년 슬레이트 건축물 실태조사'의 기초 조사 자료를 토대로 이달부터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조사대상은 해체 및 철거가 필요한 슬레이트 건축물로 건축물 소재지, 건축물대장 등재여부, 소유자, 건축용도, 사용여부, 건축면적, 슬레이트지붕 면

적, 지붕 덧씌움 여부 등을 조사한다.

특히 지난 2013년 실태조사 당시 조사가 미흡했던 미등재 건축물, 재개발 또는 리모델링 등으로 자연 감소한 물량, 대규모 비주택 슬레이트 건물 등에 대해서도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군은 오는 9월말까지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한국환경공단 시스템에 조사 결과를 입력해 활용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조사원들이 실태조사를 위해 주택이나 축사, 공장 등에 방문 시 원활하게 조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함평=김광준기자

무안군, 청년 창업활동비 지원사업 모집

3개월 간 월 50만원씩 최대 150만원 지원

무안군은 오는 9월까지 창업 초기 경제적 여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 창업자들의 안정적인 사업 정착을 돕기 위해 청년 창업활동비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19세 이상 45세 이하인 청년 창업자로서 창업 3년 이내, 연 매출액 1억 원 미만인 관내 사업장을 운영 중인 자이다. 창업활동비는 3개월 간 월 50만원

씩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되며, 지원금은 창업 성장을 위해 필요한 자문비, 제품 홍보비, 교통비 등 창업 활동과 관련된 비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

신청은 군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신청서 등 필요서류를 작성한 후 군청 지역경제과 일자리팀에 방문 접수하거나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무안=이기성기자

영암군, 개인지방소득세 환급금 조기 지급

지나해에 이어 이달 초 개인지방소득세 환급...1700명 대상

영암군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지원하기 위해 2020년 귀속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 지방소득세 환급금 지급을 작년에 이어 올해도 예년보다 2개월 앞당겨 신속하게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환급 대상자는 기 납부세액이 결정세액보다 많은 1,686명이며 그 규모는 73,000천원 수준이다. 국세청 환급계좌 정보(국세)공유를 통해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해당계좌에 환급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납세자 환급정보가 없는 200여명의 경우에는 환급안내문을 발송하여 납세자 신청을 통해 신청계좌로 환급금을 지급할 예정이며 위택스나 전화등으로 납세의 환급계좌를 파악하여 비대면 신청을 받아서 환급할 예정이다.

영암군 김광호 재무과장은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영암=조대호기자

2021년 완도 해양치유산업화 원년

해양치유, 깨끗한 해양환경과 다양한 해양자원을 이용해 몸과 마음 치유하는 건강증진활동

해양치유산업 완도군이 선도합니다!